

전남도,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 발벗고 나섰다

희망 농업인 대상 현장실습·방문지도
2010년 전국 최초 조례 지정해 운영
도내 친환경 농업·희망인...전액 무료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에 관심 있는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사업 교육생(멘티)을 모집한다.

전남도는 18일 “친환경농업에 종사하고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사업 교육생을 모집,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전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를 제정해 데 이어 2011년부터 오랜 영농 경험과 연구를 통해 선도적 유기농업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멘토링 지원사업은 유기농 명인의 전문적 맞춤 지도를 통해 초보 친환경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유기농 명인 18명이 멘토로 활동한다. 멘토링을 받은 교육생이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받는 혜택

도 주어진다.

멘토링 희망(멘티) 대상자는 전남에 거주 중인 친환경 농업인이나 친환경 농업을 희망하는 도민이다. 멘토링 비용은 전액 무료다.

멘토링은 명인 농장 현장 실습과 교육생 농장 방문 지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장소는 참가자(멘티)의 요청사항에 따라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육묘, 토양과 제초 관리, 병해충 방제, 작물 재배, 유기농 자재 제조법 등이다. 채소, 벼, 과수, 축산, 녹차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기술이 전수된다.

참가 신청은 멘토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군의 (친환경)농업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시·군은 순천(채소), 광양(산양유), 담양(과수·채소), 곡성(인삼·채소), 고흥(벼), 보성(벼·과수·녹차), 화순(과수), 해남(과수·채소·한우), 함평(밀·벼·단호박), 영광(채소), 완도(과수), 신안(벼·채소)이다. 전남도는 접수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멘토와 멘티를 연결할 예정이다.

김영석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을 시작하는 농업인이 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험 많은 명인의 현장 지도를 통해 유기농 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목포수협은 지난 17일 목포시 북항 일원에서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을 비롯해 목포수협 임직원과 조합원, 수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산 종자 방류’ 행사를 개최했다. <목포수협 제공>

목포수협, 북항 일원에 감성돔 치어 방류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 일환 15만 마리

목포수협은 18일 “전날 목포시 북항 일원에서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산 종자 방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을 비롯해 목포수협 임직원과 조합원, 수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감성돔 치어(6cm 이상) 약 15만 마리를 방류했다.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은 해양 환경 훼손과 서식지 파괴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대응하고 어족자원 보호와 수산자원 증강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목포수협이 매년 추진해 온 자원조성 사업이다.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지역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은 “지속가능한 수산

업 기반 구축을 위해 수산종자 방류를 포함한 자원조성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겠다”며 “해양 생태계 보전은 물론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수협은 앞으로도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바다의 가치를 지키고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순천미인 농협봉사단, 합동 농촌일손돕기 실시

시청 농정혁신국 직원과 매실 수확

순천미인 농협봉사단은 18일 “최근 순천시청 농정혁신국 직원들과 함께 순천시 상사면에서 매실 수확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합동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일손돕기를 시작으로 순천미인 농협봉사단은 순천시, 관내 농축협 임직원, 관내 농협 여성조직(농주모, 고주모) 등과 함께 순천시 곳곳을 찾아 일손 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농가를 도울 예정이다.

순천미인농협봉사단은 NH농협 순천시지부를 비롯한 순천시 관내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임직원 9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달 일정액을 모아 순천시 다둥이꿈키움 사업,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재해피해 복구사업 등 2013년부터 꾸준히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철호 NH농협 순천시 지부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2025년에도 유관단체와 함께 범농협 임직원은 지속적인 영농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 재능기부 활동 전개

뚝딱봉사단 곡성 삼강원서 환경정화

산림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8일 “지난 14일 곡성군에 위치한 곡성삼강원에서 뚝딱봉사단원과 곡성군산림조합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2분기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봉사단은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산림경영지도원들의 선도적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익적 역할 강화와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활동한다.

이들은 1분기 장성축령산 정화활동을 시작

로 산불예방 캠페인, 환경정화 활동 등 광주전남 관내 지역을 순회하며 나눔과 봉사 정신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적장애인가정주거시설인 곡성삼강원에서 시설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주변 환경정화 등 봉사단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설내 이용자와 소통하며 공감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국섭 곡성군산림조합장은 봉사단과 함께 시설운영에 필요한 생필품 후원에도 동참했다.

한민 산림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휴일



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준 봉사단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산림경영지도원들이 각자의 재능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봉사료 점차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